



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와 자동차보험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미국 재보험 회사인 RGA(Reinsurance Group of America)는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(driver distraction)와 자동차 사고 위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동차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보고서를 발표함.¹⁾

-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주의분산 행위가 자동차 운전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자동차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함.
 -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할 경우 자동차 충돌 사고 위험이 평소의 5.9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, 휴대폰 문자 전송의 경우 이와 같은 위험이 2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RGA는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가 자동차 사고, 사망률, 그리고 언더라이팅(underwriting)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자 관련 조사를 시행하였음.

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(NHTSA)의 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, 연령별로는 젊은 여성이, 사고 형태별로는 자동차 후미 충돌 사고가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.

- 젊은 여성의 경우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²⁾ 가운데 휴대폰 통화가 사고 원인인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.
- 주의분산 행위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치명적인 후미 충돌 사고를 낸 비율은 전체의 5.3%에 불과한 반면, 주의분산 행위를 한 운전자가 치명적인 후미 충돌 사고를 낸 비율은 전체의 13.3%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1) Julianne Callaway, Scott Rushing and Andrew Stallmann(2014, 5), "The impact of driver distraction on U.S. motor vehicle mortality", Global R&D Research bulletin, RGA.

2) 사망과 관련된 자동차 사고를 말함.

〈표 1〉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의 원인별 비율

구분	전체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 중 주의분산 행위가 사고 원인인 비율			주의분산 행위로 인한 자동차 사고 중 휴대폰 통화가 사고 원인인 비율		
	남성	여성	전체	남성	여성	전체
25세 이하	9%	10%	8%	16%	24%	17%
25세~39세	7%	8%	7%	14%	16%	15%
40세~59세	6%	7%	6%	8%	13%	9%
60세 이상	6%	7%	7%	4%	2%	3%
전체	7%	8%	7%	11%	15%	12%

자료: Julianne Callaway, Scott Rushing and Andrew Stallmann(2014, 5).

■ 주의분산 행위를 한 운전자 그룹과 일반적인 운전행태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, 상대적으로 주의분산 행위를 한 운전자 그룹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남.³⁾

- 나이가 적을수록 두 그룹의 사망률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,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.
- 성별 분석결과, 이와 같은 사망률 차이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나, 그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머물고 있음.

■ 100명의 언더라이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,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에 대하여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.

- 많은 보험회사가 불법적인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언더라이팅 과정의 고려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,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았음.
- 특히, 운전 중 문자 전송 행위의 경우 다른 주의분산 행위와는 달리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음.

■ 전 세계적으로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, 운전습관을 언더라이팅 또는 자동차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.⁴⁾

-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멀티미디어(DMB) 시청 등 주의분산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,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주의분산 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음.

3) 2012년 RGA/LexisNexis Motor Vehicle Records(MVR) 연구 내용을 확장하여 분석함.

4) 기승도(2012, 5, 29), 「운전습관을 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도입하는 방안 필요」, KIRI Weekly 금융포커스, 보험연구원 참조.

-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, 이러한 장치와 연계하여 보험회사들의 언더라이팅 능력을 배양하고 자동차보험 요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.

(RGA 등)